농촌 노인복지 모델 찾았다

북한 동포 돕기, 인도 돕기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땅을 찾아 정토(淨土) 만들기에 주력해온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농촌 지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정토회는 울주군 두서면 두북마을의 폐교를 인수, 두북 정토마을을 개원하고 이곳을 본부로 하는 농촌 지역 노인 복지 활동을 올 사찰들이 인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탈피, 정토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농촌 노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부산 동래와 해운대, 마산, 울산 등의 도심 법당 자원봉사자들을 투입, 농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전국의 정토법당은 물론 각 사찰에 까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정토회, 울주군 폐교 인수…복지본부 운영

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전국 확대 부푼꿈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젊은 층 인구가 썰물처럼 급속도로 빠져나간 농촌 지역에 남겨진 노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자식이 있어도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 없어 노동을 감내하며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은 지자체의 복지 대상에서도 제외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착안했다.

특히 정토회의 두북노인복지활동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지역

정토회는 두북노인복지관과 함께 농촌지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정토회 자원봉사자들의 회의모습.

이를 위해 정토회는 2004년 9월 울주군의 폐교를 인수해 대중목욕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원두막 등을 갖추고 인근의 거동 불편 노인 세대를 찾아 나섰다. 상반기 동안 정토회가 찾은 가구 수는 10가구, 참여한 봉사자수는 100여 명에 달한다. 그리 많지 않은 가구 수지만 월 1, 2회 꾸준히 방문, 집안 청소를 대신하거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식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 정토회는 각 지역 법당별로 자원봉사자를 꾸리고 봉사 활동 이후 마음 나누기 활동을 통해 봉사가 곧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 봉사의 모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 법당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에 참여해 온 김현자(44) 씨는 "거동이 불편하시니 식생활, 위생 등 열악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그러나 막상 봉사를 하다보면 도움을 주러 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친정에 온 듯 정신적 위안을 받고 간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 법당의 최문숙(53), 염윤희(43) 씨는 "냉장고, 집안 등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봉사의 즐거움을 털어놨다.

정토회는 7월 31일 두북 정토마을에서 그동안의 봉사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한 평가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은 186평 규모의 '한국 JTS 구호물품 창고' 준공식이 함께 열렸으며 법륜 스님은 '두북노인복지활동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법문으로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정토회는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미용 봉사, 의료 기관 연계 봉사 등 보다 실질적인 봉사 시스템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임종 직전까지 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두북 정토 마을에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법륜 스님은 "농촌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 도심에 살고 있는 자식들 모두가 책임지고 모셔야 할 바로 내 부모"라며 "농촌 어르신들에게 잃어버리는 자식을 찾아주고, 도심의 봉사자들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농촌 봉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천미희기자

부평 미얀마선원 확장

부평 미얀마선원(주지 만달라)이 선원 확장 기념법회를 8월 14일 개최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큰스님 초청 법문 및 문화 행사도 마련된다.

15평 남짓의 작은 다세대주택에서 출발한 부평 미얀마 선원은 부평역 부근의 건물 두 개층을 전용공간으로 확보하게 됐다.

미얀마선원은 현재 서울 미얀마선원(주지 산디마)과 인천 부평지역 미얀마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부평 미얀마선원 두 곳이 있다. (032)507-3507 강지연 기자

행궁터 지명복원 건의

법주사(주지 도공)가 540년전 조선 세조가 지병치료를 위해 법수사로 가던 중 머물렀던 외속리면 장재리의 지명을 행궁리 혹은 대궐터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은군에

화마를 잡아라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가 8월 2일 구광루앞에서 가상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해인사와 거창소방서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합동소방훈련에는 거창소방서, 합천군보건소, 해인사 의용 여성 소방대, 강원과 율원 스님과 종무 직원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훈련참가자들은 30여 분만에 중요문화재를 대피시키고, 각종 소방장비를 동원해 가상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8월16일 불교진흥원 30돌 기념법회

장경호거사 30주기 추모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 설립 30주년 기념법회가 8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장경호(1889~1975 · 법명 대원(大圓)) 거사 30주기 추모법회를 겸해 열리는 이날 법회는 <장경호 거사 평전> 봉헌을 비롯해 홍승희 이사장의 봉행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동국제강 창업주인 故 장경호 거사가 박정희 前 대통령에게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서한과 함께 사재 30억 6천 3백만원을 헌납해 1975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후 불교방송 설립, 다보수련원 건립, 불교문화센터 운영, 격월간 <불교와문화> 간행 등 불교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02)719-1855 박봉영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이달 착수

시추허가후 즉시 시행키로

경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천성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시추허가가 나와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에는 일체의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도 "철도시설공단이 천상산 문제를 왜곡한 자료집에 대해 일체의 사과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사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환경조사 실시 합의 이후 논란을 겪어왔던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8월 15일 전후로 시작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양산시와 울주군의 시추허가가 나오는 대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100여일 만에 지질, 지하수, 생태계 등 5개분야에 대한 환

노 대통령 월정사 방문

노무현 대통령이 8월 1일 월정사를 방문해 경내를 둘러보고 적광전과 성보박물관을 참배했다. 노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내외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간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도중 월정사를 방문해 주지 정념 스님과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남동우 기자

中 영화배우 리롄제 불교 다큐멘터리 찍는다

영화배우 리롄제(이연걸)가 앞으로 10년 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교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8월 1일 리롄제는 홍콩 언론들과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는 쿵후 영화를 찍지 않고,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불교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롄제는 불자들과 함께 향후 10년간 매년 3~4개월의 시간을 들여 세계 각지의 불교지도자부터 불법 가르침을 받는 구도의 길을 다큐멘터리로 찍는다. 조용수 기자

"대광고 교육 문제없다" 서울시교육청 답신보내

서울시 교육청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 등 시민단체들이 7월 19일 대광고에 대한 종교교육 시정명령권을 청원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7월 26일자로 종자연에 공문을 보내 "대광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종교' 과목을 편성하였으며, 예배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대광고 문제에 대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5분 예배와 수요 학년예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유철주 기자

금강대 학부조직 개편 불교학-사회복지학 접목

천태종 종립 금강대는 8월 1일부터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학부 신설을 비롯한 학부조직 변경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불교문화학부의 불교학 전공과 사회과학부의 사회복지학 전공은 불교 · 복지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역학부는 통상 · 행정학부로 조정해 통상통역학(영어 · 일어 · 중어) 전공과 행정학 전공을 신설했다.

이번조치는 불교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으로 천태종 종립대학의 정체성 강화, 어학을 기초로 한 통상영역 확대, 고위공무원 및 외교관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금강대 김유혁 총장은 "타 대학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로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인 위한 참선수행

'현대인들을 위한 참선수행' 주제법회가 8월 21일부터 서울 공생선원(주지 무각)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에는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스님(재가자의 참선수행법),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경전은 수행의 본바탕),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현대인들의 참선수행법) 등이 8월 21 · 28일, 9월 4일에 걸쳐 각각 법문을 들려줄 예정이다.(02)900-2448 강유신 기자

경 봉 문 도 회 성 명 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스님 및 종무소 담당자 스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월하방장큰스님의 열반으로 초유의 방장유고사태가 발생한지도 1년 7개월째인데도 방장추천문제가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총림대중구성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장추천의 안으로 두 번이나 산중총회가 소집되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되었고, 이번 05년 8월 22일 세 번째 산중총회가 소집공고 되었는 바 통도사 주지스님 및 종무소측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총림의 원로중진스님들과 모여서 방장추천문제 등 산중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대화의 장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원로 중진스님들과 어떠한 논의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공고된 이번 3차 산중총회도 또 유회될까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통도사 주지스님 및 종무소 측은 지금이라도 즉각 방장추천문제 등 총림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총림원로 중진스님들간의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만들길 강력히 촉구한다.

경봉문도회의 기본입장을 밝힌다.

경봉문도는 영축총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고 있는 바,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하여 1999년 7월에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림이 해제되었을 때, 양대 문중이 화합하여 2000년 3월에 총림을 복원시켰고, 2001년 8월 20일 산중총회에서 월하큰스님을 방장으로 재추천, 재추대하여서 총림을 안정시켰고,
그 때 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2001년 8월 14일 양대 문중의 합의서 약속에 따라서 주지소임을 맡도록 전폭 협조하여 총림을 화합 · 안정시켜왔다.

2001년 8월 14일 당시에 양대 문중을 대표하는 8인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은 원융화합하는 모습을 내외에 천명코저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1. 차기 주지는 양측 문도들의 공의를 바탕으로 경봉문도 적임자를 추천하며 방장이 지명토록 한다.
2. 부방장으로 청하스님을 추천하여 방장스님이 지명한다.
3. 종무행정 소임자는 양측이 협의구성하여 주지가 임명한다.
4. 위의 합의와 동시에 총무원의 합의는 소멸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고 산중총회에서 주인한다.

2545(2001)년 8월 14일

양측 합의자

곽현문 스님 석명정 스님
성 파 스님 문무애 스님
정 우 스님 영 배 스님
김지은 스님 법 선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2549년(2005) 8월 10일

경봉문도회 일동 합 장

이 합의서 약속에 따라 경봉문도들은 당시 청하스님을 부방장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여 총림을 화합케 하였고

주지스님이 종무행정의 모든 부분도 주지스님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토록 무조건 협조하여 왔다.

현 주지 현문스님은 2001년 8월 20일 소집된 당시 산중총회에서 산중총회구성원 320명이 넘는 대중이 모인 앞에서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차기 주지는 양측 문도들의 공의를 바탕으로 경봉문도 적임자를 추천하며 방장이 지명토록 한다" 는 등의 합의서를 낭독 공언하였다. (그 당시 산중총회와 관련된 관련 보도 : 2001년 8월 28일 불교신문 게재 참조)

산중총회 참석 구성원 320명이 넘는 대중앞에서 합의서를 낭독, 공언하여 결의하여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림대중들은 어떠한 산중총회의 결의된 사항도 실천되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측은 지금까지도 이 합의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체의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당시 합의서에 의해서 주지가 되었던 바 지금이라도 합의서 약속을 완전히 실천하여 총림을 화합 ·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